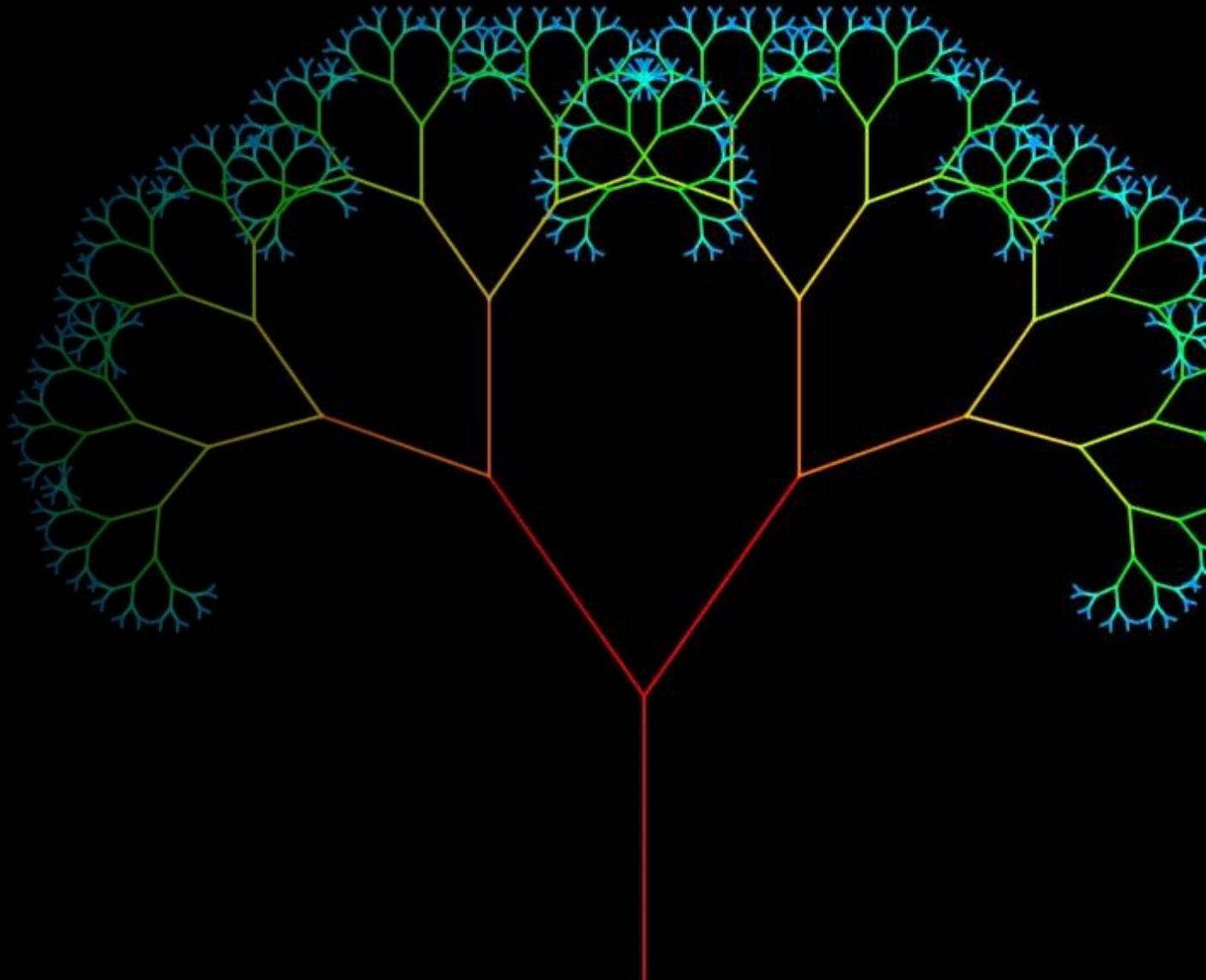


코드에 대한 다양한 관점

재귀를 중심으로 훑아보기

재귀에 따른 알고리즘 기법

Brute-Force
Dynamic Programming
Decrease and Conquer
Divide and Conquer



종료 조건, 재귀 조건, 문제 분할 및 결합

```
def recursive_function(problem):  
    # 1) 종료 조건 확인  
    if is_small_enough(problem):  
        return solve_directly(problem)  
  
    # 2) 문제 분할 or 축소  
    subproblem1, subproblem2 = divide_or_reduce(problem)  
  
    # 3) 재귀 호출  
    result1 = recursive_function(subproblem1)  
    result2 = recursive_function(subproblem2)  
  
    # 4) 결과 결합  
    return combine(result1, result2)
```

Divide and Conquer: 문제 쪼개기

```
def merge_sort(arr):  
    if len(arr) <= 1:  
        return arr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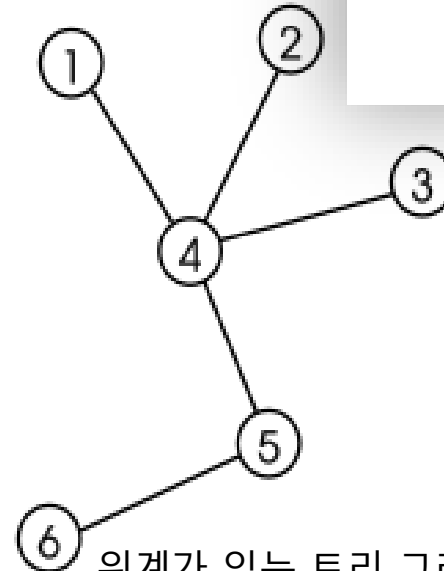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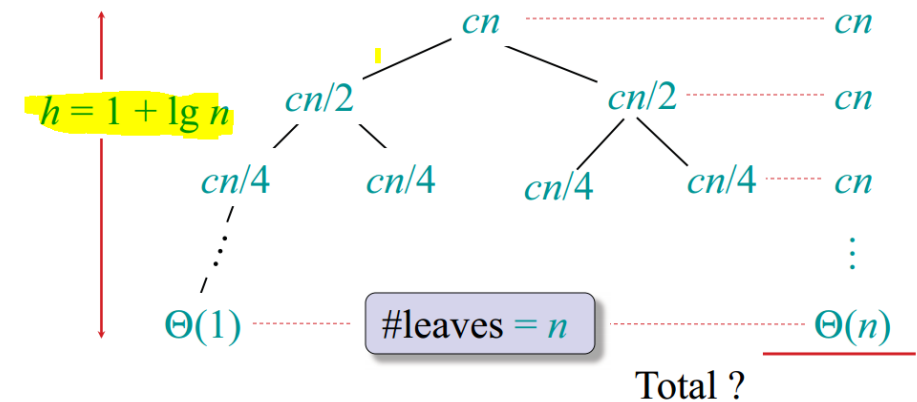
절반으로 나누어 재귀 실행

```
    mid = len(arr) // 2  
    left = merge_sort(arr[:mid]) # 왼쪽 절반  
    right = merge_sort(arr[mid:]) # 오른쪽 절반
```

```
    # 두 정렬된 배열 합치기  
    return merge(left, right)
```

Recursion tree

Solve $T(n) = 2T(n/2) + cn$, where $c > 0$ is constant.



위계가 있는 트리 그래프

Decrease and Conquer: 서서히 해결

```
def insertion_sort_recursive(arr, n=None):
```

```
    if n is None:
```

```
        n = len(arr)
```

```
    # base case: 길이 1이면 정렬 끝
```

```
    if n <= 1:
```

```
        return
```

순차적으로 하나씩 감소 재귀(이후 점점 크게 해결)

```
    # 일단 n-1 개는 이미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(재귀)
```

```
    insertion_sort_recursive(arr, n-1)
```

```
    # 이제 n번째 원소를 끼워넣음
```

```
    key = arr[n-1]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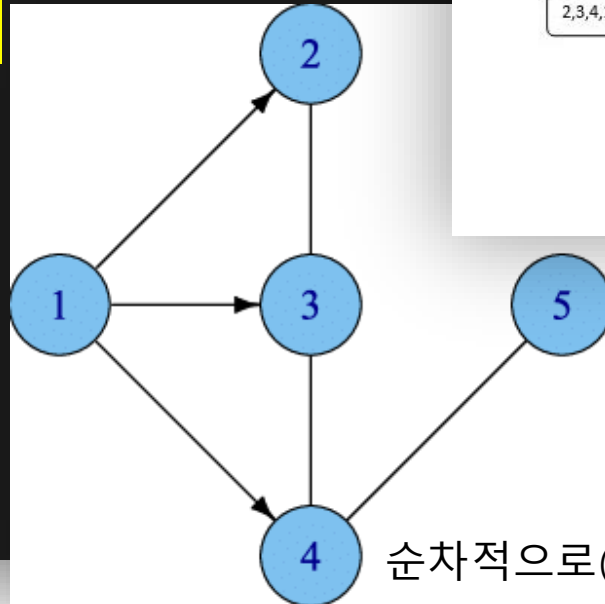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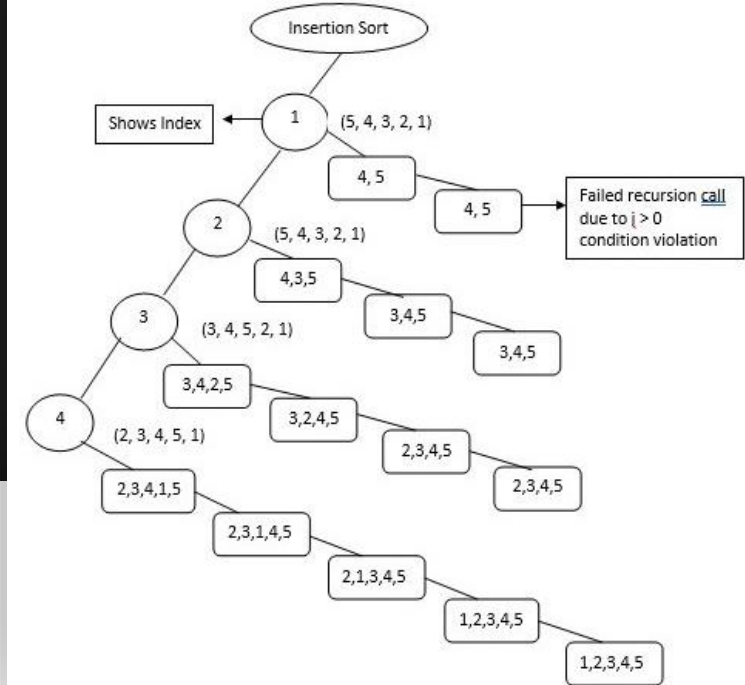
```
    j = n-2
```

```
    while j >= 0 and arr[j] > key:
```

```
        arr[j+1] = arr[j]
```

```
        j -= 1
```

```
    arr[j+1] = key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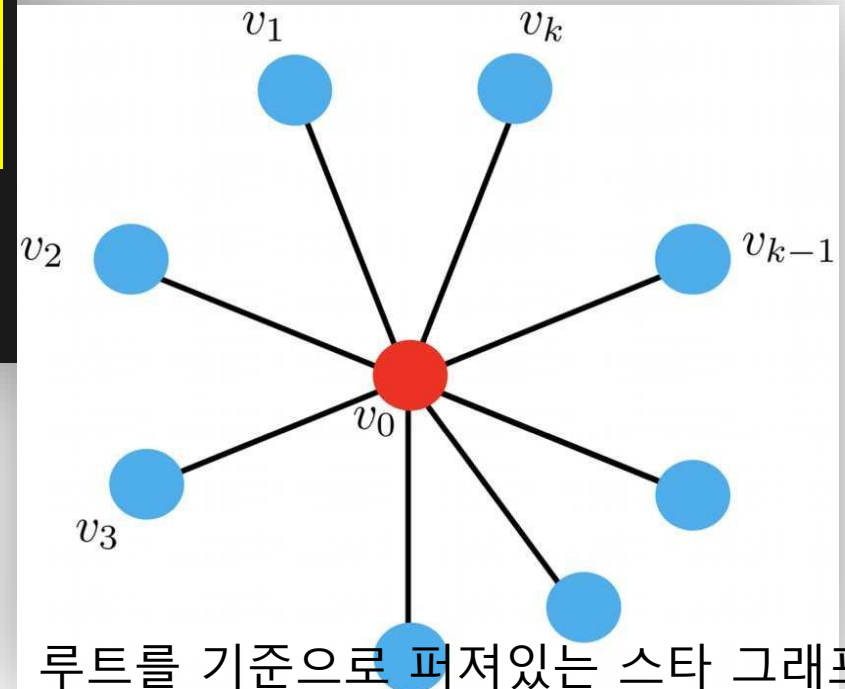


순차적으로(한줄로) 연결된 체인 그래프

Brute-Force: 가능한 한 전부 탐색

```
def knapsack_brute_force(weights, values, capacity):  
    def helper(index, current_weight, current_value):  
        # 종료 조건: 모든 아이템을 확인했을 때  
        if index == len(weights):  
            return current_value if current_weight <= capacity else 0  
  
        # 1) 현재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 
        exclude = helper(index + 1, current_weight, current_value)  
  
        # 2) 현재 아이템을 선택하는 경우 (무게 초과 방지)  
        include = 0  
        if current_weight + weights[index] <= capacity:  
            include = helper(index + 1, current_weight + weights[index], current_value + values[index])  
  
        # 최대 가치 반환  
        return max(exclude, include)  
  
    return helper(0, 0, 0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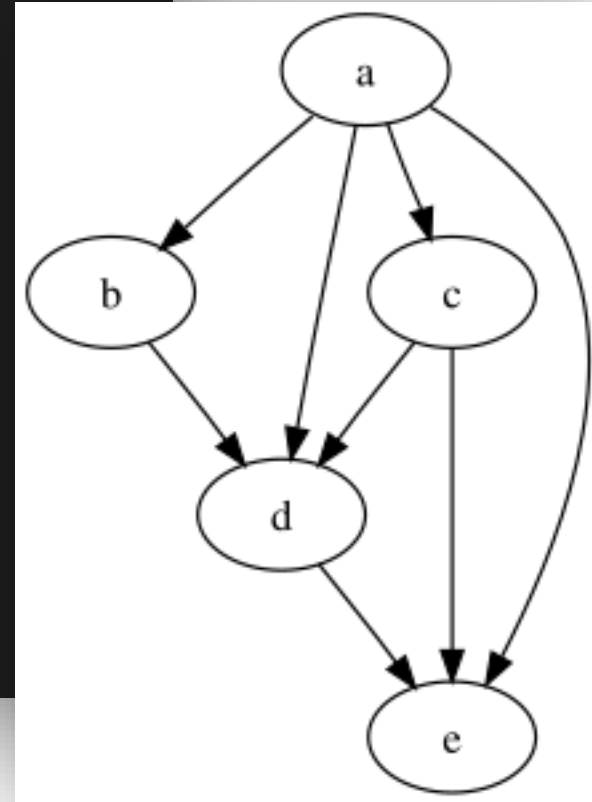
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모두 재귀



Dynamic Programming: 중복 계산 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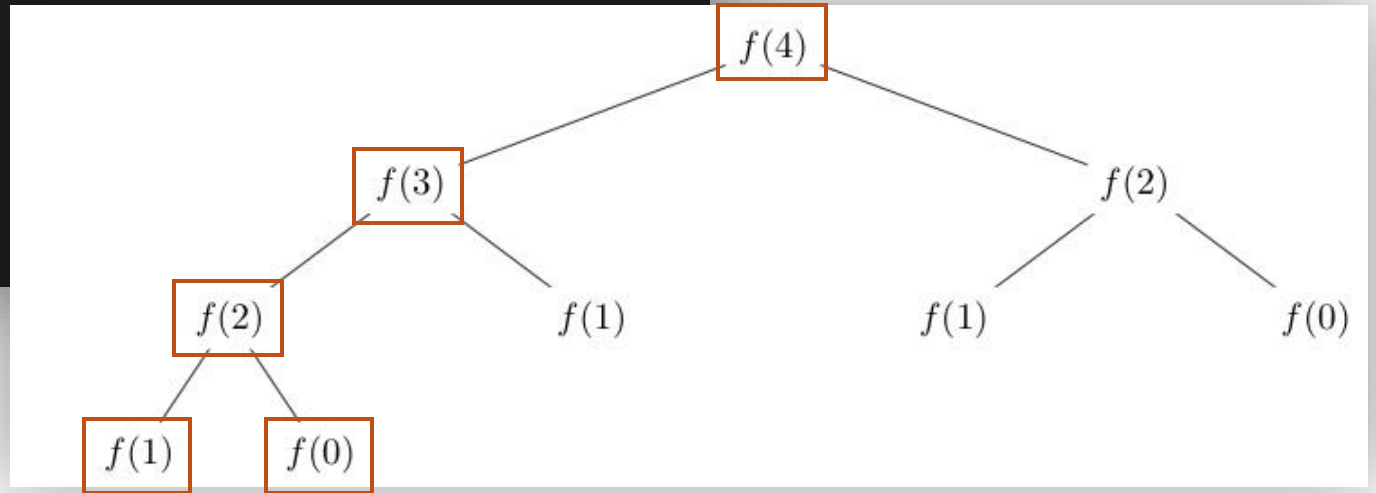
(메모이제이션)

```
memo = {}  
def fib_dp(n):  
    if n < 2:  
        return n  
    if n in memo: 메모에 속하면 재귀 건너뛸  
        return memo[n]  
  
    # 재귀로 브루트 포스처럼 계산하지만...  
    result = fib_dp(n-1) + fib_dp(n-2)  
    memo[n] = result  
    return result 재귀 계산 값을 메모
```



+Bottom-up: 재귀의 반복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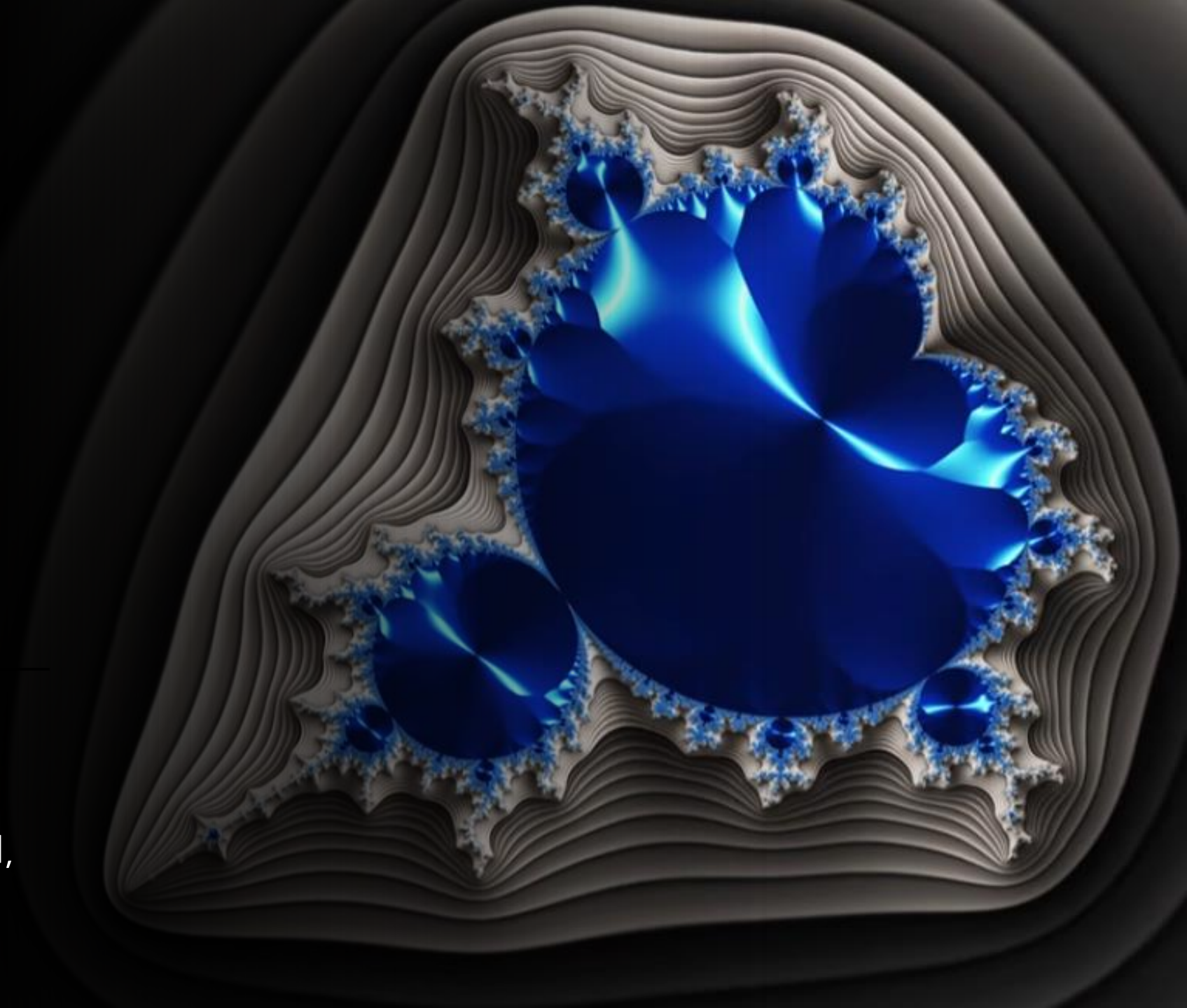
```
def fibonacci_topological(n):  
    if n < 2:  
        return n  
    fib = [0]*(n+1)  
    fib[1] = 1  
    for i in range(2, n+1):  
        fib[i] = fib[i-1] + fib[i-2]  
    return fib[n]
```



다만 재귀의 밑단과 위상 정렬을 알아야만 가능!

재귀가 주는 관점과 접근

Bottom-Up/Top-Down
Problem Definition & Solving
Approximation, On-line, Parallel,
Machine Learning, Quantum



재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?

- **형태적으로** 열매를 향해 형성, **기능적으로** 뿌리를 향해 완성

- 1) 문제 간 **위계 질서** 파악 - 하위 문제 정의와 문제 간 관계
- 2) **문제 형태**에 따른 기법 변화 - 자료구조에 따른 재귀 기법
- 3) 재귀를 **적용한 사례** 및 폭넓은 접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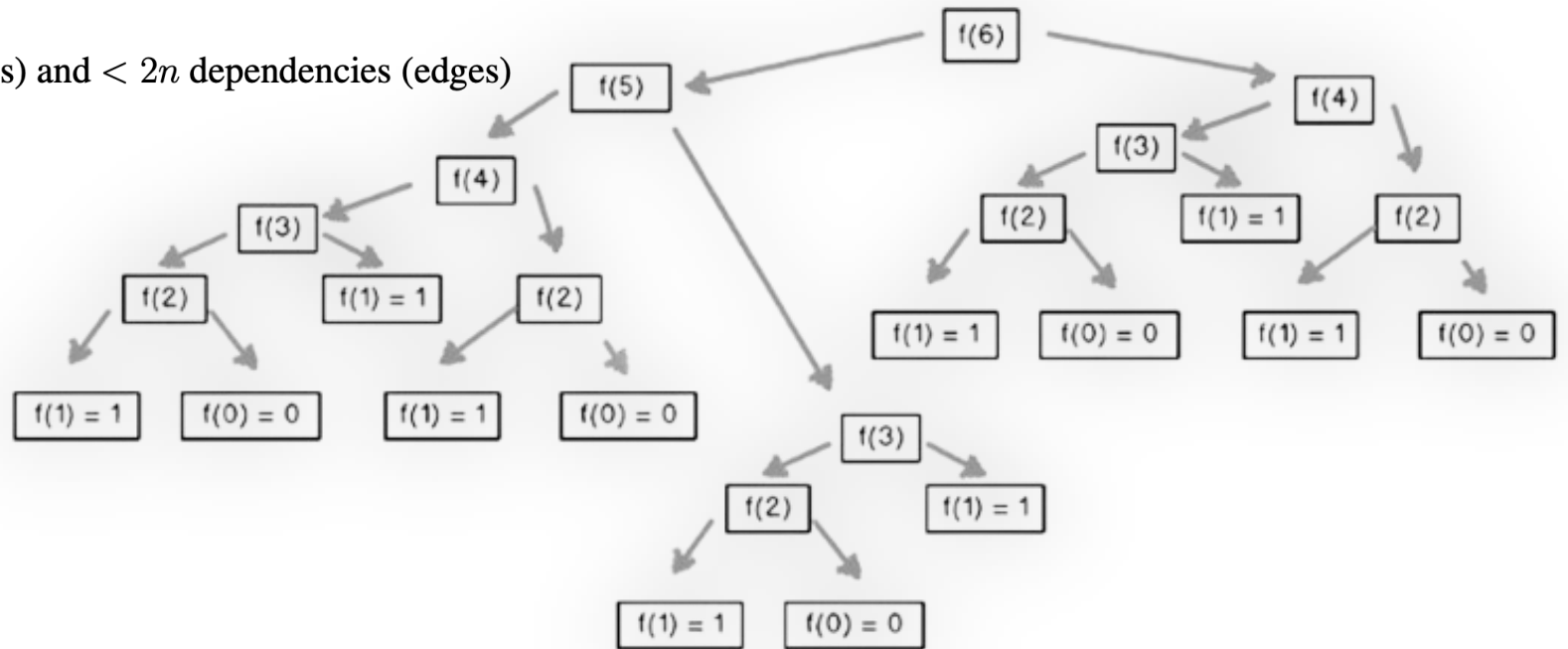
재귀 트리의 열매와 뿌리에 대해

- 1.재귀 문제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?(SubProblem, Relation)
- 2.재귀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?(Topological Order)
- 3.어디까지 베이스 케이스로 잡아야 하는가?(Base Case)
- 4.어디부터 재귀 케이스를 시작해야 하는가?(Original Case)
- 5.재귀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?(Time-Complexity)

재귀 트리의 열매와 뿌리에 대해

- **Subproblems:** $F(i)$ = the i th Fibonacci number F_i for $i \in \{0, 1, \dots, n\}$
- **Relation:** $F(i) = F(i - 1) + F(i - 2)$ (definition of Fibonacci numbers)
- **Topo. order:** Increasing i
- **Base cases:** $F(0) = 0, F(1) = 1$
- **Original prob.:** $F(n)$
- For Fibonacci, $n + 1$ subproblems (vertices) and $< 2n$ dependencies (edges)
- **Time to compute** is then $O(n)$ additions

Top-Down Bottom-Up



재귀 트리의 열매와 뿌리에 대해

- 문제 크기나 종료 조건을 알기 어려울 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함.
- 문제 크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경우(각 단계에서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한지 불분명한 경우), 종료 조건(Base Case)이 복잡한 경우, 탐색 경로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서 유리함.
- 간결한 재귀 코드에서 나오는 호출 스택의 흐름이 있는데, 이를 이해하는 것이 개발 역량에서 중요함.

1) 문제 간 위계 질서

- 문제 간 위계를 정의하는 것은 문제 풀이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.

1. **Brute Force**는 매 인덱스마다 같은 위계를 가지며,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시도. 이 방식은 문제의 중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부족.

2. **Dynamic Programming(DP)**은 문제 간의 관계를 방향성 있는 위계로 정의하고, 중복되는 하위 문제를 제거하거나 결과를 재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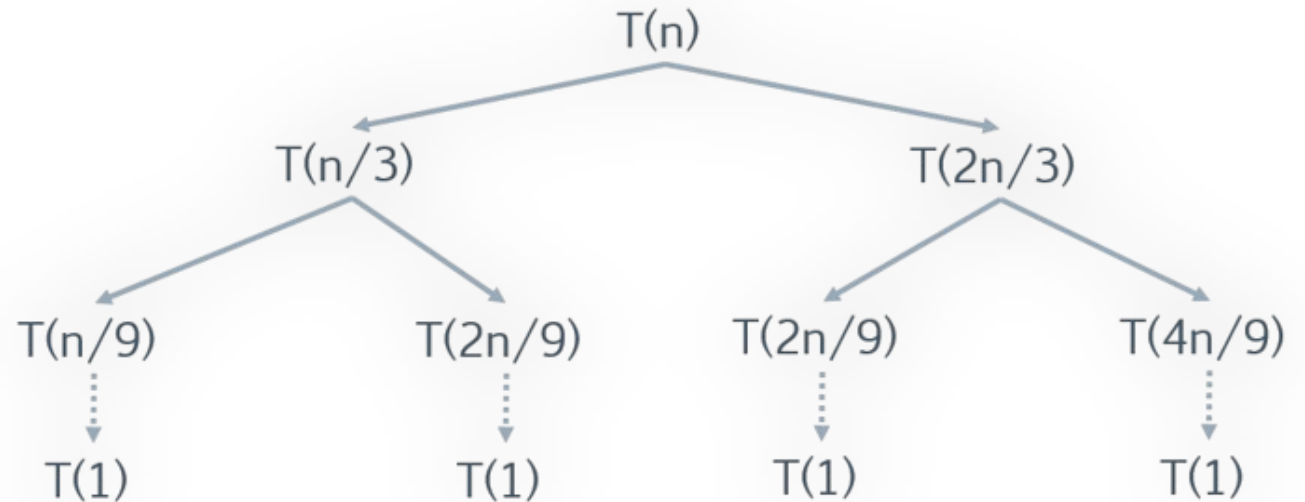
결론적으로,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문제의 상황(조건)과 형태(자료구조), 문제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알고리즘 기법을 선택.

2) 문제 형태에 따른 기법 변화

- **Divide and Conquer**는 분할된 하위 문제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병합하는 방식으로, 트리 구조(분할된 하위 문제들 간의 계층적 관계)에서 자주 사용.
- **Decrease and Conquer**는 문제를 한 단계씩 축소하며 해결하는 방식으로, 순차적으로 연결된 체인(Chain) 그래프 구조에서 자주 사용.
- **Brute Force**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탐색하는 방식으로, 선택마다 갈래가 뻗어 나가는 트리 구조에서 사용.
- **Dynamic Programming**은 중복된 하위 문제를 저장해 결과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, 방향성이 있지만 순환이 없는 그래프(DAG) 구조에서 사용.

2) 문제 형태에 따른 기법 변화

- 각 재귀 기법의 사고 흐름을 기하적 구조(RECURSION TREE)로 이해하면,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결합하는 로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.
- 흥미롭게 생각해볼만 한 포인트!

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- 근사 알고리즘: NP-Hard와 같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“**최적해에 가까운(근사도)**” 답을 내기 위해 사용
- 재귀적 구조: 문제를 작게 분할하거나, **가지치기**를 통해 근사 해를 도출

분할 정복(Divide and Conquer) + 근사 접근

: 도시들을 몇 개의 지역(클러스터)으로 분할 후 재귀하여, 각 클러스터 내에서 가까운 근사 해를 얻음. 이후 이 해들을 붙이는 식(병합)으로 전체 투어를 구성.

무차별 대입법(Brute-Force) + 근사도 검사

: 완전 탐색을 재귀로 돌리되, “현재 경로 비용이 이미 근사 해보다 커졌다” 싶으면 중단(백트래킹). 이렇게 가지치기하면 지수 시간에서 상당 부분 절약 가능.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- 온라인 알고리즘: 입력(데이터)이 순차적으로 들어와 과거에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없는 상태, 동시에 미래 입력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
- 재귀는 문제의 **종료 조건(Base Case)**과 **구조적 특성(SubProblem, Relation)**을 이해하고,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점진적으로 분할하여 해결하는 방식. 그러나, 온라인 알고리즘은 미래 입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, 종료 조건이나 문제 분할의 논리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.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- **병렬 알고리즘**: 각 연산을 **병렬 프로세서**를 통해 처리하는 알고리즘
- **재귀적 구조**: 재귀는 자연스레 분할 정복(Divide and Conquer) 구조를 가지는데, 분할된 하위 문제들이 서로 **독립적**이라면, 쉽게 병렬 처리로 넘어갈 수 있음.

Parallel Merge Sort

: 리스트를 절반으로 나눈 뒤(재귀적 분할), 각각 독립적으로 정렬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합침. 이때 하위 문제들을 각각 다른 스레드/프로세스로 진행.

Parallel DP

: LCS 문제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, 각 칸(혹은 대각선 방향으로) 독립 계산이 가능하다면, 병렬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도 있음.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$0 \leq k < m + n$ 를 만족하는 어떠한 k 에서, $k = i + j$, $0 \leq i < m$, and $0 \leq j < n$ 을 만족하는 i 와 j 를 찾을 수 있고, subarray $C[0]-C[k-1]$ 은 subarray $A[0]-A[i-1]$ 과 subarray $B[0]-B[j-1]$ 의 merge 결과이다.

Parallel Merge Sort

- co-rank(두 개 인덱스) function

각 스레드 별로 배열을 나누어서 할당하고, 각 스레드에 할당된 subarray를 생성. 이후 각 스레드에 의해 생성된 output 요소의 rank(인덱스)를 알 수 있고, 그러면 각 스레드는 co-rank 함수를 사용.

- Subproblems: $S(i, j)$ = sorted array on elements of $A[i : j]$ for $0 \leq i \leq j \leq n$
- Relation: $S(i, j) = \text{merge}(S(i, m), S(m, j))$ where $m = \lfloor (i + j)/2 \rfloor$
- Topo. order: Increasing $j - i$
- Base cases: $S(i, i + 1) = [A[i]]$
- Original: $S(0, n)$
- Time: $T(n) = 2T(n/2) + O(n) = O(n \lg n)$

폭넓은 접근

```
1 int co_rank(int k, int* A, int m, int* B, int n)
2 {
3     int i = (k < m) ? k : m; // i = min(k, m);
4     int j = k-i;
5     int i_low = (0 > (k-n)) ? 0 : k-n; // i_low = max(0, k-n);
6     int j_low = (0 > (k-m)) ? 0 : k-m; // j_low = max(0, k-m);
7     int delta;
8     bool active = true;
9
10    while (active) {
11        if (i > 0 && j < n && A[i-1] > B[j]) {
12            delta = ((i - i_low + 1) >> 1);
13            j_low = j;
14            j = j + delta;
15            i = i - delta;
16        }
17        else if (j > 0 && i < m && B[j-1] >= A[i]) {
18            delta = ((j - j_low + 1) >> 1);
19            i_low = i;
20            i = i + delta;
21            j = j - delta;
22        }
23        else {
24            active = false;
25        }
26    }
27
28    return i;
29 }
```

C with CUDA kernel

```
1 __global__
2 void merge_basic_kernel(int* A, int m, int* B, int n, int* C)
3 {
4     int tid = blockDim.x*blockIdx.x + threadIdx.x;
5     int k_curr = tid * ceil((m+n)/(float)(blockDim.x*gridDim.x));
6     int k_next = min((tid+1) * (int)ceil((m+n)/(float)(blockDim.x*gridDim.x)), m+n);
7     int i_curr = co_rank(k_curr, A, m, B, n);
8     int i_next = co_rank(k_next, A, m, B, n);
9     int j_curr = k_curr - i_curr;
10    int j_next = k_next - i_next;
11
12    sequentialMerge(A+i_curr, i_next-i_curr, B+j_curr, j_next-j_curr, C+k_curr);
13 }
```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Parallel DP: LCS 문제에서 테이블을 만들 때, 각 칸(혹은 대각선 방향으로) 독립 계산이 가능하다면, 병렬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도 있음

1. Subproblems

- $x(i, j)$ = length of longest common subsequence of suffixes $A[i :]$ and $B[j :]$
- For $0 \leq i \leq |A|$ and $0 \leq j \leq |B|$

2. Relate

- Either first characters match or they don't
- If first characters match, some longest common subsequence will use them
- (if no LCS uses first matched pair, using it will only improve solution)
- (if an LCS uses first in $A[i]$ and not first in $B[j]$, matching $B[j]$ is also optimal)
- If they do not match, they cannot both be in a longest common subsequence
- **Guess** whether $A[i]$ or $B[j]$ is not in LCS
- $x(i, j) = \begin{cases} x(i+1, j+1) + 1 & \text{if } A[i] = B[j] \\ \max\{x(i+1, j), x(i, j+1)\} & \text{otherwise} \end{cases}$
- (draw subset of all rectangular grid dependencies)

3. Topological order

- Subproblems $x(i, j)$ depend only on strictly larger i or j or both
- Simplest order to state: Decreasing $i + j$
- Nice order for bottom-up code: Decreasing i , then decreasing j

4. Base

- $x(i, |B|) = x(|A|, j) = 0$ (one string is empty)

5. Original problem

- Length of longest common subsequence of A and B is $x(0, 0)$
- Store parent pointers to reconstruct subsequence
- If the parent pointer increases both indices, add that character to LCS

		j						
		0	1	2	3	4	5	6
		y_j	B	D	C	A	B	A
i	0	x_i	0	0	0	0	0	0
	1	A	0	↑	↑	↑	←1	←1
	2	B	0	↖1	←1	←1	↑1	←2
	3	C	0	↑1	↑1	↖2	←2	↑2
	4	B	0	↖1	↑1	↑2	↑2	↖3
	5	D	0	↑1	↖2	↑2	↑2	↑3
	6	A	0	↑1	↑2	↑2	↖3	↖4
	7	B	0	↖1	↑2	↑2	↑3	↑4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3. 병렬 DP(Parallel DP) 적용

병렬 처리가 가능한 이유

1. DP 테이블의 계산 의존성:

- 각 셀 $dp[i][j]$ 는 $dp[i-1][j]$, $dp[i][j-1]$, $dp[i-1][j-1]$ 값에만 의존합니다.
- 즉, 동일한 대각선(예: $i+j=k$) 상에 있는 값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.
- 따라서, 한 대각선의 값을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2. 병렬 업데이트 흐름:

- 대각선 단위로 테이블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.
- (i, j) 가 있는 셀은 모두 **동일한 대각선($i+j=k$)**에 있으며, 대각선 내의 값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 가능합니다.
- 병렬 처리를 통해 각 대각선을 동시에 계산하면, 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병렬 업데이트 방식

• 행 단위 계산(Sequential DP):

일반적으로 $dp[i][j]$ 는 위에서 아래로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계산됩니다.

• 대각선 단위 계산(Parallel DP):

병렬 처리를 위해 각 대각선의 셀들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.

- 대각선의 식: $i + j = k$
- 모든 셀이 동일한 대각선에 있다면, 이전 대각선의 값을 활용해 병렬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- 머신 러닝

결정 트리(Decision Tree) 학습 과정

: 결정 트리는 "어떤 기준(속성)을 토대로 데이터를 둘(이상)로 분할", 이후 그 하위 집합에 대해 반복해서 분할하며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. 분할 정복으로, 가장 좋은 분할 기준을 찾고, 그 기준으로 분할한 뒤 (SubProblem, Relation), 남은 데이터에 대해 재귀적으로 트리 생성.

+ 딥 러닝 역전파(Backpropagation)

: DP의 중복 계산 저장(Memoization)을 통해, 레이어마다 도출되는 편미분 값을 저장하고 재활용. 실제로는 반복문 형태가 일반적이지만, 간단히 생각해보기 좋음(재귀로 사용되면 어떨지. Bottom-up을 통해 반복문화).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결정 트리(Decision Tree) 학습 과정

- 정보 이득(Information Gain): 데이터가 특정 기준으로 분할되었을 때, **순도가 증가**하거나(다양성이 감소), **불확실성이 감소**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값.
- 정보이론에서, 정보 이득은 부모 집합과 자식 집합의 엔트로피(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척도)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됨.

$$Entropy(A) = - \sum_{k=1}^m p_k \log_2(p_k)$$

이때 엔트로피의 감소는
불확실성의 감소를 뜻하며,
곧 순도 증가, 정보 이득을 뜻함!

이 식을 바탕으로 검은색 박스로 둘러싸인
A 영역의 엔트로피를 구해보겠습니다.
전체 16개(m=16) 중에
빨간색 동그라미(범주=1)는 10개, 파란색(범주=2)은 6개이군요.
그럼 A 영역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$$Entropy(A) = -\frac{10}{16} \log_2\left(\frac{10}{16}\right) - \frac{6}{16} \log_2\left(\frac{6}{16}\right) \approx 0.95$$

<https://swancity.tistory.com/17>

여기서 A 영역에 검은 점선을 그어
두 개의 부분집합(R1, R2)으로 분할한다고 가정합니다.
두 개 이상 영역에 대한 엔트로피 공식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.
이 공식에 의해 A 영역의 엔트로피를 아래와 같이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.
(Ri=분할 전 레코드 가운데 분할 후 i 영역에 속하는 레코드의 비율)

$$Entropy(A) = \sum_{i=1}^d R_i \left(- \sum_{k=1}^m p_k \log_2(p_k) \right)$$

$$Entropy(A) = 0.5 \times \left(-\frac{7}{8} \log_2\left(\frac{7}{8}\right) - \frac{1}{8} \log_2\left(\frac{1}{8}\right) \right) + 0.5 \times \left(-\frac{3}{8} \log_2\left(\frac{3}{8}\right) - \frac{5}{8} \log_2\left(\frac{5}{8}\right) \right) \approx 0.75$$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```
import numpy as np
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

class DecisionTree:
    def __init__(self, max_depth=None):
        self.max_depth = max_depth
        self.tree = None

    def fit(self, X, y):
        # 재귀적으로 트리 생성
        self.tree = self._build_tree(X, y, depth=0)

    def _build_tree(self, X, y, depth):
        # 종료 조건: 데이터가 모두 같은 클래스이거나, 최대 깊이에 도달한 경우
        if len(set(y)) == 1 or (self.max_depth is not None and depth >= self.max_depth):
            return Counter(y).most_common(1)[0][0] # 가장 빈도가 높은 클래스를 반환

        # 가장 좋은 분할 기준 찾기
        best_feature, best_threshold = self._find_best_split(X, y)

        # 데이터를 분할
        left_indices = X[:, best_feature] <= best_threshold
        right_indices = X[:, best_feature] > best_threshold

        # 재귀적으로 왼쪽/오른쪽 서브트리 생성
        left_subtree = self._build_tree(X[left_indices], y[left_indices], depth + 1)
        right_subtree = self._build_tree(X[right_indices], y[right_indices], depth + 1)

        # 현재 노드 반환
        return {"feature": best_feature, "threshold": best_threshold,
                "left": left_subtree, "right": right_subtree}
```

```
def _find_best_split(self, X, y):
    # 간단히 구현: 분할 기준으로 정보 이득(Information Gain)을 사용
    n_features = X.shape[1]
    best_gain = -1
    best_feature, best_threshold = None, None

    for feature in range(n_features):
        thresholds = np.unique(X[:, feature])
        for threshold in thresholds:
            # 데이터를 분할
            left_indices = X[:, feature] <= threshold
            right_indices = X[:, feature] > threshold

            # 정보 이득 계산
            gain = self._information_gain(y, y[left_indices], y[right_indices])
            if gain > best_gain:
                best_gain, best_feature, best_threshold = gain, feature, threshold

    return best_feature, best_threshold

def _information_gain(self, parent, left_child, right_child):
    # 엔트로피 기반 정보 이득 계산
    def entropy(labels):
        counts = np.bincount(labels)
        probabilities = counts / len(labels)
        return -np.sum([p * np.log2(p) for p in probabilities if p > 0])

    parent_entropy = entropy(parent)
    n = len(parent)
    left_entropy = entropy(left_child)
    right_entropy = entropy(right_child)
    return parent_entropy - (len(left_child) / n * left_entropy + len(right_child) / n * right_entropy)

def predict(self, X):
    return np.array([self._traverse_tree(x, self.tree) for x in X])

def _traverse_tree(self, x, tree):
    if not isinstance(tree, dict):
        return tree
    if x[tree["feature"]] <= tree["threshold"]:
        return self._traverse_tree(x, tree["left"])
    else:
        return self._traverse_tree(x, tree["right"])
```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1. 분할 기준 선택

결정 트리에서 각 노드는 데이터를 **두 그룹(왼쪽, 오른쪽)**으로 나누는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.
이때 가장 좋은 기준은 **정보 이득(Information Gain)**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.

$$(f, t) = \arg \max_{f, t} \text{InformationGain}(f, t)$$

• f : 특징(feature)

데이터를 나누는 데 사용할 열(column).

• t : 임계값(threshold)

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 값.

정보 이득(Information Gain) 계산:

데이터를 분할한 후, 얼마나 불확실성이 감소했는지를 나타냅니다.

$$\text{InformationGain}(f, t) = H(y) - \frac{|L|}{|y|} H(L) - \frac{|R|}{|y|} H(R)$$

• $H(y)$: 현재 노드에서 데이터의 엔트로피(불확실성)

$$H(y) = - \sum_{c \in C} p(c) \log_2 p(c)$$

$p(c)$: 클래스 c 의 비율.

• L, R : 데이터를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으로 나눕니다.

• $|L|, |R|$: 각 그룹의 데이터 개수.

• 의미:

• 부모 노드(전체 데이터)의 불확실성에서, 분할된 데이터(왼쪽, 오른쪽)의 가중합 불확실성을 뺀 값입니다.

• 정보 이득이 크면 데이터를 잘 분할한 것입니다.

2. 재귀적으로 트리 생성

한 번 데이터를 나눈 후, **왼쪽과 오른쪽 그룹**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.
이 과정을 **재귀적으로** 적용하여 트리를 만듭니다.

$$T(f, t) = \begin{cases} \text{Leaf Node}, & \text{if stopping condition is met} \\ \{f, t, T(L), T(R)\}, & \text{otherwise} \end{cases}$$

• **Leaf Node**: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을 때 트리의 끝(잎 노드)입니다.

• **Recursive Call**: 데이터를 L 과 R 로 나누고, 각 데이터셋에서 트리를 다시 생성합니다.

3. 종료 조건

분할을 멈추는 조건:

1. 데이터가 모두 같은 클래스일 때

$$H(y) = 0$$

• 예: 데이터가 모두 *yes*라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.

2. 트리의 최대 깊이에 도달했을 때

$$\text{Depth} \geq \text{MaxDepth}$$

• 예: 트리의 깊이를 5로 제한한 경우, 더 이상 분할하지 않습니다.
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- 양자 알고리즘

- 완전히 고전적 재귀가 양자적 재귀는 아니지만, 큰 문제를 쪼갬 뒤(주파수, 주기 등) 하위 문제를 해결하고 결합한다는 사고가 비슷함.

Shor 알고리즘(소인수분해)

Grover 알고리즘(검색)

5.1 Shor 알고리즘(소인수분해)

- 아이디어:

1. 특정 함수 $f(x) = a^x \bmod N$ 의 **주기(period)**를 찾으면, 그걸 바탕으로 N 의 소인수를 구할 수 있음.
2. "주기 찾기"에 양자 푸리에 변환(QFT) 사용.
3. QFT 자체가 고전적으로는 FFT(Fast Fourier Transform) 방식으로 구현 가능(재귀 구조).

- 즉, 분할정복(FFT) + 양자 중첩으로 "주기"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것.

5.2 Grover 알고리즘(데이터베이스 검색)

- 고전적으로 $O(N)$ 걸리는 탐색을, 양자 상태를 이용하면 $O(\sqrt{N})$ 에 가능.
- 단계별 반복(Iteration) 과정에서 하위 상태의 진폭을 갱신해 "정답 상태"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.
- 이를 재귀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, 고전적인 분할정복과는 다소 다르지만, "상태를 계속 업데이트해나간다"는 점에서 재귀적 시뮬레이션이 가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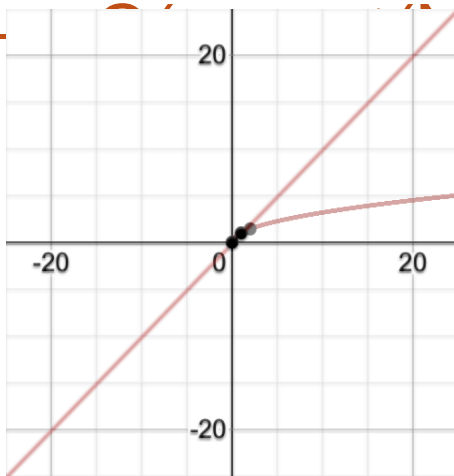
3) 재귀를 적용한 사례 및 폭넓은 접근

Grover 알고리즘(검색)

정답 상태의 진폭이 충분히 결정되었을 때, 탐색을 종료(Base Case)

재귀 호출은 Oracle과 진행(Recursive Case)

$O(N)$ - $O(\sqrt{N})$



2-1. 문제: 데이터베이스 검색

-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데이터를 찾는 문제입니다.
- 예: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값을 찾기.

2-2. 고전 알고리즘의 한계

- 고전적인 탐색 알고리즘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므로, 평균적으로 $O(N)$ 시간이 걸립니다.

2-3. Grover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

Grover 알고리즘은 양자 상태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더 빠르게 검색합니다.

1. 양자 중첩으로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확인

- 고전적인 컴퓨터는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지만, 양자 컴퓨터는 중첩(superposition)을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.

2. 올바른 답을 증폭(증명)

- Grover 알고리즘은 **올바른 답이 포함된 상태를 반복적으로 증폭(강조)**하여, 최종적으로 올바른 답을 빠르게 찾습니다.
- 반복 횟수는 $O(\sqrt{N})$ 으로, 고전적인 탐색보다 훨씬 빠릅니다.

발표를 마무리하며...

- 재귀 자체는 "코드를 자기 자신이 다시 호출한다"는 형태적인 특징.
- 어떤 논리(로직)와 사고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재귀 기법으로 나뉘짐.

결론적으로 하나의 단순한 재귀 코드만으로도,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기법이 되며, 이 재귀적 사고가 개발자로서 상상력과 활용 아이디어에 큰 도움이 될 것.

감사합니다